

허창수 “대만 통해 글로벌 진출 확대”

〈GS그룹 회장〉

GS그룹 타이베이에서 사장단회의 “대만 혁신 기업 주목할 필요있어”

GS그룹은 지난 30일부터 이틀간 대만 타이베이에서 사장단회의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사장단회의에는 GS가 대만 및 동남아를 비롯한 해외에서 전개하고 있는 사업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허창수 GS 회장을 비롯해 주요 계열사 CEO(최고경영자)들이 참석했다.

허창수 회장은 “GS가 글로벌 시장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쌓기 위해서는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바이오 등 신기술을 앞세워 아시아 실리콘밸리의 꿈을 이루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는 대만의 혁신 기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허 회장은 “연관 산업으로의 확장 모델 같은 기존 방식으로는 기업이 더 이상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데 한계에 다다른 만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의 흐름에 맞춰 열린 마음으로 글로벌 기업의 혁신 DNA를 배워 우리의 역량으로 삼아야”한다고 강조했다.



허창수 GS 회장이 10월 30일부터 이틀간 대만에서 열린 사장단회의에 참석해 전기 스쿠터 혁신 기업인 ‘고고로’를 방문하고 전기스쿠터를 시연해 보고 있다. /GS그룹

허 회장에 따르면 한국과 50년의 경제협력 역사를 가진 대만은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의 교역량인 375억달러를 기록해 한국의 6위 교역 파트너가 됐다. 또한 신남향 정책으로 아세안 국가 등과도 긴밀한 경제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다.

그는 이어 “이런 관점에서 대만은 GS가 동남아 등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을 확대해 가는데 중요한 전략적 교두보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정연우 기자 ywj964@

현대차그룹, 중국법인에 이광국 사장 선임

리더십 변화로 현지 대응력·경쟁력 ↑

현대자동차그룹 이광국 부사장(사진)이 중국사업총괄 사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현대차는 31일 이같은 승진 인사를 발표했다.

아울러 현대차는 중국기술연구소에 스벤 파투쉬가 연구소장을 새로 영입했다. 스벤 소장은 앞서 폭스바겐 중국 R&D 담당을 맡고 있었다.

현대차는 중국 시장에서 리더십 변화를 통해 현지 대응력과 경쟁력을 제고하고 재도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인사를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현대차는 최근 중국사업 부문 조직개편을 진행한 바 있다. 지난 4월 중국사업 임직원을 중국으로 배치하고 8월에는 중국 지주사 중심 조직 재정비도 마쳤다.

9월에는 동평위예다기아에 리펑 총경리를 임명하기도 했다. 기아차의 중국법인 첫 현지인 CEO다. 이신임 사장을 선임하면서 리더십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사장은 앞으로 현대·기아차 중국사업을 총괄하며 사업 경쟁력 강화와 브랜드 가치 제고, 중장기 비전 수립과 사업 전략구제화 등을 이끌게 된다. 이 사장은 풍부한 해외 사업 경험과 다양한 대내외 네트워크를 보유해 높은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해외정책팀장과 영국판매법인장, 와싱턴사무소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스벤 소장은 중국 시장에서 10여년간 쌓은 전문 지식과 통찰력으로 현대·기아차의 중국 현지 모델 경쟁력을 제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독일 다름슈타트 공대 전자제어공학과를 졸업하고 상하이 폭스바겐에서 중국 R&D 부문을 맡아 이차 폭스바겐 연구개발을 이끌었다.

/김재웅 기자 juk@

LG전자, SW분야 공인시험기관 자격 갖춰

LG전자가 소프트웨어 신뢰성을 강화하는데 성공했다.

LG전자SW공인시험소는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산하 한국인정기구(KOLAS)로부터 소프트웨어 분야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받았다고 31일 밝혔다.

LG전자는 국내 제조업체 중 유일하게 소프트웨어 분야 국제공인시험기관을 갖추게 됐다. 가전과 모바일 등 영역에 필수가 된 소프트웨어 품질 신뢰를 대폭 강화하게 된 셈이다.

이에 따라 LG전자는 SW공인시험

소를 통해 공인시험성적서를 발급할 수 있다.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의 품질 측정에 관한 국제표준 ISO/IEC 25023에 따라 기능 적합성, 성능 효율성, 호환성, 사용성, 신뢰성, 보안성, 유지보수성, 이식성 등 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SW공인시험소가 발행한 공인시험 성적서는 국제인정기구 상호인정협정(ILAC-MRA)에 따라 미국 등 70여개 국에서 인정받게 된다. 국제적으로도 동등한 효력과 공신력을 갖는다.

/김재웅 기자

정비 아무리 빨라도 보름 이상 항공업계 ‘보잉 리스크’ 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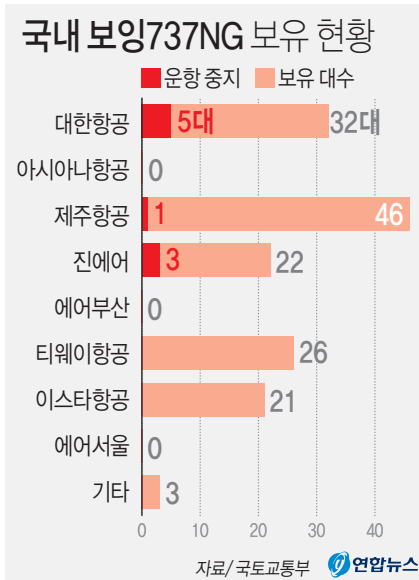
국내 비행횟수 3만회이상 42대
나머지 108대 점검 전까지 운항
보잉사, 결함부위 새것 교체 할것

미국 보잉 항공기 B737NG 계열 기종에서 동체 균열이 발견되면서 국내 항공업계에 ‘보잉 리스크’가 더 커질 전망이다.

10월 31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연방항공청의 긴급 지시에 따라 보잉의 B737NG 계열을 점검한 결과, 누적 비행 횟수가 3만회를 넘긴 1133대 중 5%인 53대에서 균열이 발견돼 운항이 정지됐다.

국내 항공업계에도 B737NG계열의 비행기 150대가 운항 중인 것으로 파악돼 ‘보잉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토부가 나서 국내에 도입된 150대 중 비행 횟수 3만회가 넘는 42대를 점검한 결과, 9대에서 균열이 발견됐다. 나머지 108대는 점검 이전까지 정상 운항할 것으로 알려져 불안이 더 커지고 있다.

지난 30일 국토교통부는 서울 강서구 한국공항공사에서 국내 9개 항공사 경영진을 비롯한 운항·정비본부장 등과 긴급 안전점검회의를 열고 보잉사 B737NG 계열의 동체 균열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다. 누적 비행횟수가 2만2600회~3만



회 미만인 항공기 22대에 대해서는 올해 11월 이내 점검을 마치기로 했다. 또한 2만2600회 미만에 해당하는 항공기 86대도 기준에 도달하기 이전에 조속히 점검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제 기준보다 더 강화해서 점검하고 있다”고 입장을 전했다.

반면 아직 점검을 마치지 않은 108대의 항공기가 계속 정상 운항할 것으로 보여 ‘보잉 리스크’는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보유 중인 항공기가 전부 보잉 737NG계열인 제주항공(45대)과 티웨이항공(26대)은 현재 균열이 발견된 항공기를 제외하고 정상 운항 중이라고

밝혔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누적 비행 횟수가 3만회 이상인 비행기 10대는 모두 점검을 마친 상태”라고 말했다. 티웨이항공 관계자도 “현재 3대가 기준에 도달해 점검을 받았고 나머지 항공기 중 10대만 22600회 초과에 해당한다”며 “점검 전까지는 정상 운항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항공기가 점검을 받기 전까지는 안전에 대한 위험성을 안고 운항한다는 말이다.

보잉사의 기술진은 11월 초 한국을 방문해 결함이 발견된 항공기를 수리하기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보잉은 결함 부위의 부품 전체를 새것으로 교체하는 방식으로 동체 균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항공업계는 보잉 기술진이 도착한 이후에도 점검과 부품 교체 등에 최소 2~3주가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한 항공업계 관계자는 “일단 제작상의 문제이긴 하나,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긴 것인지는 조사해봐야 한다. 설계 혹은 조립 등의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확실치는 않으나 보잉사의 기술진이 방한해 2대만 수리하고 나머지는 국내 기술진이 맡아 수리한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김수지 수습기자 sjkim2935@metroseoul.co.kr

네이버, 금융회사 ‘네이버파이낸셜’ 출범

주식·카드·보험까지 사업 확장
네이버페이 후불 결제서비스 고려

네이버가 내년에 ‘네이버 통장’을 출시해 금융 사업 확장의 교두보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1일 금융 전문 자회사 ‘네이버파이낸셜’ 설립과 관련해 통장, 주식·보험, 신용카드 등 다양한 상품을 출시해 본격적인 금융 사업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네이버파이낸셜의 초대 대표를 맡은 최인혁 최고운영책임자(COO)는 31일 실적발표 컨퍼런스를 통해 “금융상품의 경우 2~3년 정도를 계획하고 있으며, 일반 이용자들이 적은 금액으로 쉽



한성숙 네이버 대표가 ‘네이버 커넥트2020’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게 사용할 수 있는 금융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대표는 “네이버페이가 가진 장점을 이용해 쇼핑의 결제 서비스에 연계될 후불 결제 서비스도 고려하고 있다”

며 “내년 하반기부터 수수료 취득이 가능한 신용카드 및 예·적금 추천 서비스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검색·페이·부동산 등 금융 관여도가 높은 트래픽을 적극 활용해 금융 서비스 이용자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도 “미래에셋과 협업해 새 시장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경쟁력 있는 금융상품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결제 규모 확대를 통해 금융 사업 기반을 키우겠다”고 말했다.

한편, 네이버는 이날 3분기 연결 기준 매출 1조6648억원, 영업이익 2021억원, 당기순이익 853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채윤정 기자 echo@

SKT, 5G 가입자 늘어 매출 증가했지만 투자비에 ‘발목’

SK텔레콤은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올 3·4분기에 영업이익 3021억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0.7% 감소했다고 10월 31일 공시했다. 올 3·4분기 매출은 4조5612억원, 순이익은 2744억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9% 증가, 73.9% 감소했다.

SK텔레콤의 이동통신 매출은 5G 가입자 확대로 2조4864억원을 기록해 전

년 대비 0.1%, 전분기 대비 2.1% 증가했다. SK텔레콤 5G 가입자는 9월말 기준 154만명을 넘어섰다. 가입자당 평균 수익(ARPU)는 3만1166원으로 전분기보다 1.3% 증가했다. 5G 가입자가 늘어나며 고가 요금제 가입자 또한 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5G 상용화는 마케팅 비용과 설비투자(CAPEX) 증가도 이끌어 영업

이익에도 영향을 끼쳤다. SK텔레콤은 올 3·4분기 설비투자 6610억원을 집행했다. 지난해와 비교해 64.4% 늘어난 규모다.

5G 가입자 모집이 과열 양상을 보이며, 마케팅비도 7878억원을 투입해 전체 비중의 27.1%에 달한다. SK텔레콤 측은 현재 44% 이상의 5G 마켓 비중을 확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나인 기자 silkni@